

“무분별 해상풍력단지 조성 없다”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종희 의원, 문 후보자 답변 받아내

국회 김종희 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제-부안)은 전북 부안-고창을 비롯해 정부가 전국9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원전 10기 발전용량(10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부터 어업인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겠다. 장관으로 취임 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를 검토 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면답변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가 직접 답변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란 발언과 같은 맥락이어서 사업추진 방식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문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에 걸친 10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부작용과 어족 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협 연구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설치 시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과 부유사 대량 발생 ▲부유사 대량 발생과 미생물 서식지 파괴에 따른 해양생물의 급감 ▲방오도로, 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과 건설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에 따른 산란장 파괴 ▲고압선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부안과

고창, 영광 어민들이 수산자원,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장관 취임 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통항금지 등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어업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해양환경 파괴와 서식지 파괴, 어획고 감소 등의 결과가 드러난다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냐”고 질의했다.

문 장관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 이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해상풍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해양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

업인 보호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상풍력은 막아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객관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정책소신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ICT 활용 감염병 대응시스템 마련

김광수 의원, 국제포럼 개최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ICT 활용 감염병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포럼을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신종감염병은 환경에 따라 원인이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들로 인해 국가 방역체제와 국민건강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서 ICT 분야의 활용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ICT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유입단계에서부터 발생·확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발 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에 오늘 토론회가 보건 의료 현장과 ICT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국민건강과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염병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 등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제주 4·3’ 진실 밝히겠습니다

“완전한 해결,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

문 대통령 “끝까지 행길 것”
이 총리 “불의한 권력도 4·3의 진실 덮지 못해”
국방부, 71년만 첫 사과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위로의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행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혼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제주도민의 강인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이제 그만 됐

다고 할 때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 71주년 추념식은 이날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참석 사실을 전하며 “제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정부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길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이날인 국무총리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추념식에서 “불의한 권력도 풍화의 세월도 4·3의 진실을 덮지 못했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한 과거는 현재의 문제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가르쳐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제주 4·3은 1948년 4월3일 일어난 대규모 저항과 경찰의 진압 사건을 일컫는다. 1년 전인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 제주도민대회에서 이뤄진 경찰의 발포를 계기로 촉발됐고, 1955년까지 7년 7개월 간 제주도민 약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 최선 다 할 것”

군산시의회 정길수·김우민 의원, 민주당 입당
“지엄 공장 매각 진행 등 희망 보일 때 힘 모아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군산시의회 정길수, 김우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고항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길수, 김우민 의원은 “군산조선소가 동종종단과 지엄 군산공장 폐쇄는 연이은 악재로 군산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산공장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등 지역경제에 희망이 보이는 이때에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정치로 더 열심히 뛰는 일꾼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비롯해 채정룡 지역위원장, 김경구 의



군산시의회 정길수 의원(왼쪽)과 김우민 의원이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남 이하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정룡 지역위원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군산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정길수, 김우민 의원을 환영한다”며 “희망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나누자”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